

오는 주요 장면들을 세상 천진난만하게 표현했어. 어떤 때는 도맹그가 탐탐을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 비르지니가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잔디밭에 나타났다네. 그 아이는 근처의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물을 길어오려고 조심조심 걸어갔지. 도맹그와 마리는 미디안의 목동들을 연기하며, 비르지니가 샘물에 접근하려는 것을 막고 그 아이를 밀쳐내려는 시늉을 했어. 폴은 그걸 도와주러 달려와서는 목동들을 두들겨 패고, 비르지니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준 뒤 머리에 다시 올려주면서, 그 아이에게 붉은 빈카 꽃으로 만든 화환도 같이 씌워주었네. 덕분에 비르지니의 하얀 낮빛이 더욱 돋보였지. 그럴 때면 나도 이 연극에 끼어들어서, 르우엘 역을 맡아 폴에게 나의 딸 치포라와의 결혼을 승낙해주었다네.●

또 어떤 때는 비르지니가 박복한 여인 룯을 연기하기도 했지. 가난한 과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,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곳에서 자신은 이방인임을 실감하게 되는 여인 일세. 도맹그와 마리는 수확하는 사람들을 흉내 냈네. 비르지니는 두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밀이삭을 줍는 시늉을 했지. 폴은 근엄한 족장 흉내를 내면서 비르지니에게 질문했고, 그러면 비르지니는 떨면서 폴이 묻는 말에 답했네. 곧 마음속 깊숙이 연민을 느낀 폴은 죄 없는 여인을 따듯이 맞이하라 이르고, 이 박복한 여인에게

---

●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무의 요정.